

예비음악교사를 대상으로 한 융합기반 음악교육 효과성 질적 연구 분석*

임새롬**

〈요약〉

이 연구는 예비음악교사의 미적 경험과 융합 역량 강화를 통한 음악교사 정체성과 수업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맥신 그린의 예술교육철학과 LCE 예술교육 및 융합교육의 접점에서 도출된 수업원리를 바탕으로 설계한 수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것이다. 사범대 학부생 예비음악교사 5인을 대상으로 한 학기 12회기에 걸쳐 융합기반 음악교육을 실행한 후 그 효과성을 논의하였다. 이론-경험-실습의 3단계 수업은 음악 미적 경험을 위한 융합교육의 방법을 통해 실행되었다. 분석자료로 얻은 수업 산출물 및 인터뷰 내용은 순환적 분석기법을 통해 순환적·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코딩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교육의 내용과 질에 높은 만족도를 느꼈고, 음악교육의 목적에 대한 인식에 변화를 보였을 뿐 아니라 음악교사의 태도, 역할, 정체성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수업 전문성도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교사로서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미적 경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음악적 삶으로의 변화를 꾀하는 데까지 확장되었다. 그 동력은 융합기반 음악교육을 통한 미적 경험, 학습공동체 구성, 교사 모델링, 마이크로티칭, 피드백, 성찰의 반복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의 효과로 나타났다.

주제어: 융합기반 음악교육, 음악교육, 융합교육, 예비교사교육, 교사 미적 경험

I. 서론

교사는 자신의 철학과 자신이 경험한 수업에서 자기 수업의 자원을 찾는다. 즉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비교사들의 수업경험은 중요하며, 교사양성과정은 교사 너머의 학생들을 만나듯 실제적이고 학습자에게 유의미하게 체화될 때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예비음악교사가 음악 미적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

투고일: 2023년 5월 22일, 심사일: 2023년 6월10일 -6월 30일, 게재확정일: 2023년 6월 30일

* 이 논문은 2022년 임새롬의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 운암중학교 교사

면, 융합교육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학교 현장에서 음악 미적이고 융합적인 수업을 구현하는 데 높은 진입장벽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융합교육이란 교수자가 설계한 수업계획을 학습자가 체험하고 특정한 ‘결과물’을 얻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융합교육은 학습자가 개방성을 가지고 협업과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학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성찰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융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결과물’ 아닌 ‘방법’, 혹은 ‘수단’으로서 교과 본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양질의 체계로 구성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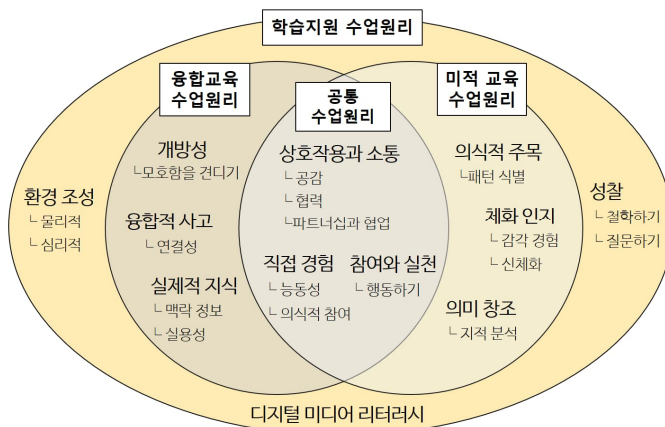
대표적인 예술교육이라 할 수 있는 LCE(Lincoln Center Education, 이하 LCE) 예술교육에 철학적 기반을 제공한 맥신 그린(1917-2014)이 가장 이상적인 교육의 표본이라 주장한 심미적 교육은 융합교육과 마찬가지로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 활동으로 구성되어 자기주도적으로 예술 작품을 이해하고 성찰하는 통합된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심미적 교육을 실행하는 교사가 먼저 예술 작품과 조우하기 위한 충분한 실제적 지식을 보유하고 학습자를 능동적으로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예비교사들에게 통합된 경험이 제공될 때 교사 정체성을 확립하고 수업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예술교육과 융합교육의 공통점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수업원리를 조직하고, 관련한 수업을 설계함으로써 예비음악교사들이 음악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융합기반 음악교육에 전문성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연구의 첫 단계로 먼저 음악 중심 융합교육의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임새롬·송영옥·백성혜·민경훈, 2019)를 통해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음악이 타 교과의 학습목표나 융합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융합의 과정을 통해 음악의 본질을 다각도로 탐색하는 음악 중심의 융합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의미한다. 이후 문헌 분석을 통해 음악교육의 목적인 미적 교육과 시대의 화두인 융합교육이 서로 유사한 특성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담론이 사변적인 논의로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 실제성을 띤 방법론으로 구체화하고자 한 연구(임새롬·민경훈·백성혜, 2021)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임새롬·민경훈·백성혜(2021)의 ‘융합교육 음악교육 수업원리 개발’ 연구를 바탕으로 수업을 설계하고 실행한 임새롬·최경식(2022)의 ‘예비음악교사 대상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 설계’의 후속연구로서, 사범대에 재학 중인 예비음악교사 5인을 대상으로 한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결과 및 효과성을 분석한 것이다. 이는 반복적인 미적 경험과 마이크로티칭을 통해 음악교육철학을 정립하고 수업전문성을 함양하는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음악교사 정체성 확립과 전문성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설계 하에 진행되었다. 그러나 실행연구로서 연구참여자의 수가 적다는 제한점이 있으

나 연구대상의 변화 양상을 더욱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었으며 이는 질적 연구의 특징이기도 하다. 한편, 연구에 적용된 교사 모델링이나 마이크로티칭 등의 처치 결과는 상황과 연구대상의 교육경험, 환경 조성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힌다.

II. 이론적 배경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수업원리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은 큰 틀에서는 라이겔루스(1983)의 이론구성 절차(Theory-construction process)를 따랐다. 미적 교육과 관련하여 미국의 교육철학자 맥신 그린의 예술교육철학과 뉴욕의 LCE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술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융합교육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외의 융합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분석하고 분류하였다. 미적 교육과 융합교육의 핵심요소를 비교·분석하여 28개로 정리한 후 가족 유사성 접근법(Family Resemblance Approach)을 통한 범주화와 전문가 회의를 통해 4개 범주의 12개 수업원리가 도출되었으며, 각 수업원리는 요소, 내용 및 지침으로 구체화하여 조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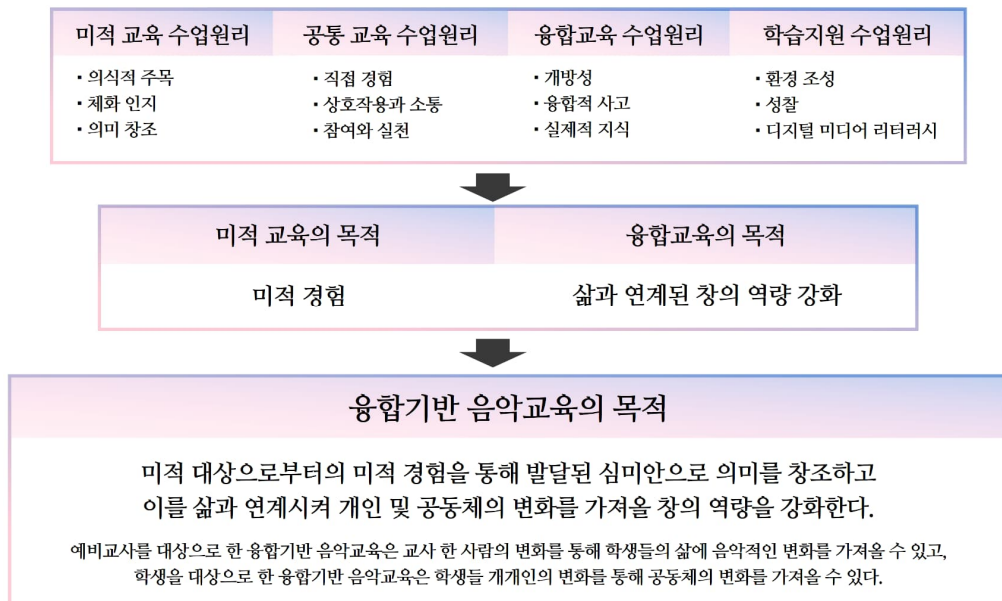
[그림 1]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12가지 수업원리

(출처: 임새롬·민경훈·백성혜 (2021).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원리 개발. 음악교육공학, 49, p. 82.)

위의 수업원리는 음악 미적 경험을 위한 미적 교육과 삶과 연계된 창의 역량 강화를 위한 융합교육으로서 융합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음악 미적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원리’라 명명하였다. 수업원리는 예술 작품과 대면할

때 발휘되는 개개인의 역량이 되기도 한다.

융합기반 음악교육은 ‘미적 대상으로부터의 미적 경험을 통해 발달된 심미안으로 의미를 창조하고, 이를 삶과 연계시켜 개인 및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올 창의 역량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임새롬·민경훈·백성혜, 2021). 이는 두 가지 방면에서 확장될 수 있는데, 예비음악교사를 위한 융합기반 음악교육을 통해서는 예비음악교사 한 사람의 변화가 ‘학생들’의 삶에 음악적인 변화를, 학생들을 위한 융합기반 음악교육을 통해서는 학생들 개개인의 변화가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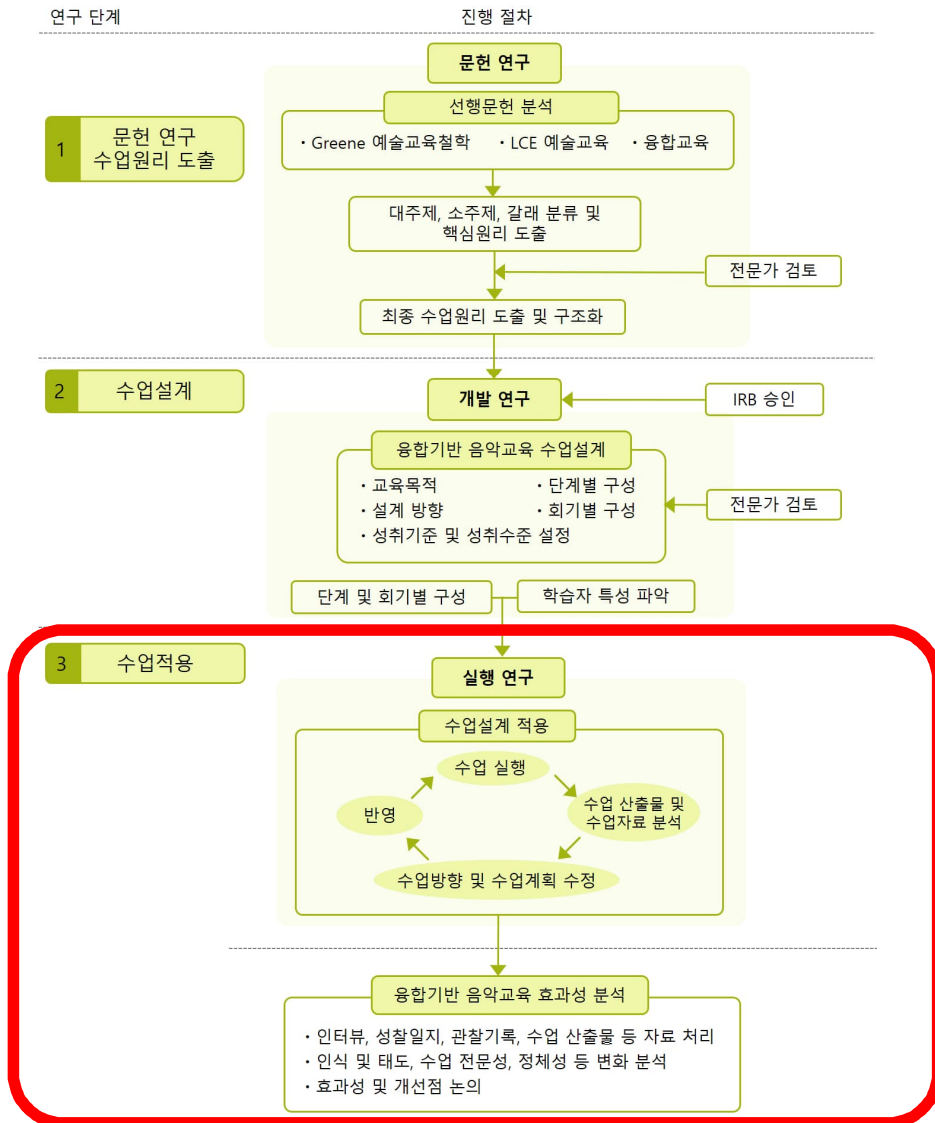


[그림 2]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목적

(출처: 임새롬·민경훈·백성혜 (2021). 위의 논문, p. 83.)

다음으로는 위의 수업원리를 교육의 실천 주체인 예비음악교사를 위한 양성교육에 적용 및 실행하여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임새롬·최경식(2022)의 연구에서 예비음악교사의 미적 경험과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교육의 성격을 종합하여 한 학기 분량의 수업을 설계하였다. 이 수업은 ‘융합기반 음악교육을 통해 미적 경험과 음악 중심 융합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예비음악교사의 수업 전문성 및 긍정적 정체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미적 경험을 통해 그 의미를 이해하고, 실제적 지식으로 형성 후 학습자에게 안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수업 전문성을 향상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

예비음악교사를 대상으로 한 융합기반 음악교육 효과성 질적 연구 분석



[그림 3] 예비음악교사를 위한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설계 및 적용의 절차
 (출처: 임세롬 (2022). 맥신 그린(Maxine Greene)의 예술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한 예비음악교사 대상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설계 및 적용. 박사학위논문. A대학교. p. 204)

이상으로 연구의 모든 단계를 종합해 보면 [그림 3] 과 같으며, 이 연구는 예비음악교사를 대상으로 한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설계 및 적용을 위한 연구 중 세 번째 단계인 수업적용과 그 효과성을 분석한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방법 및 연구도구

〈표 1〉 수업 단계 및 연구 일정

~2020년 8월	9월				10월				11월				2021년 1월~		
수업원리 개발 및 수업설계	수업설계 적용 및 효과성 검증(회기별)														분석
	사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후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원리 개발 + 수업설계 + 수업모형 선정 + IRB 승인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수업원리가 적용되어 설계된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은 예비음악교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자료 정리 + 분석 + 시사점 도출
	준비	이론(의식적 주목)				경험(체화 인지)				실습(의미 창조)				정리	
사전 인터뷰	· Greene의 예술교육철학 · 융합교육 이해 · 과학 분야의 미적 경험 · 융합기반 음악교육 실천 방안 구상 · 교육과정, 수업안 이해 · 교과서 구성 이해 · 예비수업안 작성 · 성찰				· 현대합창을 통한 미적 체험 · 관소리를 통한 미적 체험 · 재즈를 통한 미적 체험 · 모델링을 통한 교수법 및 수업원리 체화 · 성찰				· 모둠별 수업실연 · 개인별 수업실연 · 자기 및 동료평가지 작성 · 토론 및 피드백 · 전문가 피드백 · 성찰				사후 인터뷰 + 설문지		
~2020년 8월	9월				10월				11월				2021년 1월~		

(출처: 임새롬 (2022). 위의 논문. p. 267의 표를 재구성함.)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5명의 예비음악교사 5인을 대상으로 14주차 동안 강의를 진행하였다. 강의 종료 후에는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약 40분간 통화를 통해 사후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미처 응답하지 못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합산된 모든 자료들은 질적 분석방법을 통해 분석 및 해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다층적인 수집 방법을 통하여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전문가 3인과의 토론 및 검토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연구논리와 방법, 결과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연구도구로는 연구 진행 중 획득된 48개의 수업관찰, 성찰일지, 수업안, 과제 등의 수업산출물을 활용하였다. 총 4가지 종류로, 첫 번째는 연구의 사전-중간1,2차-사후에 실시한 개인 인터뷰와 집단 인터뷰를 전사하여 분석한 것이다. 여러 번에 걸친 인터뷰는 새드먼(2006)의 ‘세 번의 면담 구조’를 참고하였으며, 참여자들의 성장을 알아보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두 번째로, 연구자는 이 연구의 교수자인 동시에 연구담당자로서 전체 12회기의 수업을 참여관찰하며 기록한 관찰일지를 확보하고, 분석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연구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모든 수업영상을 녹화

또는 녹음하고 모두 전사하였다. 전사 자료와 관찰일지는 수업 중 참여자의 언어적·비언어적 표현과 수업 전문성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활용되었다. 세 번째는 수업로그와 과제, 동료 및 자기평가지 등의 수업산출물을 활용하였다. 참여자가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담아 작성한 과제들은 음악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이해도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수업안과 수업시연 분석을 통해 수업 전문성의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해당 수업의 내용을 참여자들 자신의 삶과 연계할 수 있도록 성찰 일지나 패들릿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내용은 수업을 통해 생각한 교사의 역할이나 태도, 자신의 정체성, 교사 모델링을 통한 미적 경험, 마이크로티칭 후 자기 수업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살펴보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2. 연구참여자

이 연구의 참여자는 총 5명으로 사범대에 재학 중인 예비음악교사 1, 2학년들이다.

<표 2> 연구참여자 명단

이름	학년	성별	전공실기
J112	1	여	서양음악(피아노)
H112	1	여	서양음악(피아노)
J212	1	여	서양음악(작곡)
H222	2	여	서양음악(작곡)
H321	2	남	서양음악(피아노)

(출처: 임새롬 (2022). 위의 논문. p. 273)

사전 인터뷰에서 ‘음악교사가 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는 부모님의 전공이나 권유, 종교생활 등으로 어릴 때부터 참여자 모두 음악 경험이 있었으며,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을 때 음악에 대한 애정과 교육 경험으로부터의 긍정적인 인상이 더해져 음악교육을 전공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참여자들은 음악교사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음악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의 세계를 다른 이에게 알려주고 싶은 욕구, 직업으로서 자신이 즐기며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과 같이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사전 인터뷰를 통해 음악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음악교사가 될지에 대해서나 음악교사상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없다고 응답하였다. 음악 미

적 경험이라는 용어를 들은 적도 없으며, 음악을 깊이 있게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이들은 좋은 음악교사가 되려면 음악적 지식과 교육학적 지식을 많이 알아야 한다고 공통된 답을 내놓았으며, 음악을 많이 알면 교수능력이 저절로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방법은 모르는 상태였다. 이에 공통적으로 음악교사에 대한 꿈이 막연한 상태에서 생각을 구체적으로 확립하고 음악을 성공적으로 교육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 강의를 신청했다고 하였다. 개별적인 수강신청 이유(복수 응답)로는 이 연구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3명), 융합교육을 배워보고 싶어서(1명), 다른 수업보다 배울 게 더 있을 것 같아서(1명), 음악교육이 왜 필요한지, 음악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지, 음악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배우고나면 자신의 꿈에 대한 근거와 열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2명)라고 답하였다.

3. 수업과정

LCE는 경험-실천-이론의 순서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학습자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론이 작품에 대한 선입견이나 감식안을 주지할 수 있으며, 이는 작품을 통한 개인의 창조적인 영감을 방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LCE의 학습자 경험 중심 교육을 기조로 하되 이론-체험-실습의 3단계로 재구성하였다. 그 이유는 연구참여자들과의 사전 인터뷰를 통해 음악 경험이나 교수 경험, 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LCE 교육과정의 참여자들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과, 수업의 학습자 입장뿐 아니라 미래의 음악교사로서 자신이 수용한 내용을 명확한 교수법으로 창조되기 위해 수업내용의 개념적 지식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다. 이는 참여자들이 스스로 무엇을 위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숙고하면서, 작품에 대한 인상에서 나아가 문장화된 개념들을 숙지한 뒤 작품과 조우할 때, 자신의 개념적 지식과 예술 경험이 융합하여 새로운 의미로 창조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에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이론과 철학, 음악 예술과 타 학문에서의 미적 경험에 대한 개념을 익히는 1단계 의식적 주목, 교사 모델링을 통해 미적 경험을 체험하는 2단계 체화 인지, 앞의 두 단계에서 수용한 의미를 자신의 것으로 재해석하여 마이크로티칭으로 실습하는 3단계 의미 창조 단계로 구성하였다. 각 단계는 5회기, 3회기, 4회기의 총 12회기이다.

<표 3> 융합기반 음악교육 회기별 주제 및 학습목표, 수업내용

회기	단계	주제	학습목표	세부내용
1	의 식 적 주 목	심미적 교사로의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ene 예술교육철학의 필요성 이해 • 미적 교육과 관계맺기: 성찰을 통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어에서 오는 느낌 기록하기 • 미적 경험과 미적 교육이란? • Greene의 예술교육철학이란? • 미적 교사의 역할과 태도 • 자기 강점 알기 • 융합교육은 왜 필요한가? • 융합기반 음악교육은 필요한가? • 성찰의 의미와 방법 • 성찰의 시간
2		융합형 교사로의 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낯선 융합과 친해지기 •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수업원리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기 과제 피드백(실천 가능성) • 융합의 핵심요소 • 미적 교육 수업원리 • 융합교육 수업원리 • 공통 수업원리
3		낯선 분야로의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교과와의 융합 아이디어 살펴보기: 또래 학습 • 타 분야의 미적 경험 살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아이디어 과제 갤러리 • 우수과제 선정 후 의견 발표 • 과학에서의 미적 경험은?
4		융합 미적 교사로의 실천 기술 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합기반 음악교육 모델링에 주목하기 • 수업도구 살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아이디어 동료평가 내용 피드백 • 모듈별 평가 루브릭 작성하기 •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사례 소개 • 학습지원 수업원리 이해 • 교과서 및 교육과정 탐색 • 수업안 작성법
5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의 수업결과물 탐색을 통한 자기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포르 형성을 위한 담소 • 예비 수업안 발표 및 피드백 • 성찰일지 작성
6	체 화 인 지	미적 체험1 〈When David He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융합 미적 경험과 교사 모델링을 통한 상상력과 공감, 심미안 향상 • 소리, 공간, 글, 음악 탐색을 통한 미적 경험과 자신과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리 탐색 • 공간 탐색 • 가사 분석 및 피드백 나누기 • 작품 감상 및 성찰을 통한 공감과 공유
7		미적 체험2 〈관소리 ‘홍보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음악의 미적 경험과 교사 모델링을 통한 심미안 향상 • 교사이자 학습자로서 우리 전통음악에서의 미적 경험과 자신과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전 구연 들으며 상상하기 • 소리 및 발림, 추임새 익히기 • 모듈별 사설 및 발림 만들기 • 자막지 작성 후 북장단에 맞춰 발표 • 성찰을 통한 공감과 공유

8		미적 체험3 〈Route 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장르의 미적 경험과 교사 모델링을 통한 심미안 향상 · 교사이자 학습자로서 친숙하지 않은 장르에서의 미적 경험과 자신과의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즉흥리듬 만들기 · 블루스 스케일 설명 미션 · 즉흥선율 만들기 · 〈Route 66〉 단계별 학습 및 분석 · 작품 감상 및 재즈 상식 이해 · 성찰을 통한 공감과 공유
9	의미 창조	Art Sha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가로서의 정체성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의 생활 속 음악 이야기, 미적 경험, 자신의 음악 공유
10		모듈별 수업시연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미적 음악교사 수업 전문성 신장 및 실천 역량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별 모듈이 작성한 수업안 발표 및 수업시연, 피드백 및 토론과 성찰
11		모듈별 수업시연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작위 모듈이 작성한 수업시연 및 수업안 발표, 피드백 및 토론
12		개인별 수업시연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수업시연, 피드백 및 토론
12		개인별 수업시연2		

(출처: 임새롬 (2022). 위의 논문. pp. 240-241)

각 단계를 간단히 설명하면, 의식적 주목은 그린의 예술교육철학과 융합교육,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원리의 개념, 음악 예술과 타 학문에서의 미적 경험을 이해하는 단계이다. 과학과 수학에서의 미적 경험, 자연과학과 사회과학과 음악의 융합, 융합의 사례를 살펴본다. 이때, 강의 중 활동은 파트너, 모듈, 전체 강의로 이루어진다. 이후 이러한 개념들을 응용한 수업 아이디어를 구상한 후 아이디어를 확장시킨 간단한 수업안을 작성, 학습공동체 내에서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내용이 학부생들에게 다소 어려울 수도 있으나 이를 의식적으로 집중하고 주목하며 철학하는 ‘태도’ 연습에 목표를 둔다.

체화 인지는 몸과 감각을 열어 음악을 미적으로 경험하기 위한 단계이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 음악을 단지 인상이나 느낌으로만 인지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며 몸으로 체화하도록 문학, 연극, 무용, 미술 등의 타 예술 장르와 융합하여 음악을 다각도로 고찰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현직 교사의 모델링(modeling)을 통해 음악을 미적으로 경험하고, 참여자들이 학습자이자 동시에 예비음악교사로서의 수업기술과 마음가짐을 성찰하는 과정이다. 대상 작품은 예비음악교사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품의 배경이나 음악이 익숙하지 않으면서도 흥미롭고, 여러 층위를 가지고 있어 해석의 여지

가 많은 다양한 시대와 장르의 곡으로 선정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수업방식으로서 타 예술과의 융합과 더불어 학습자로서 이미 알고 있던 음악 지식과 음악 경험, 그리고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수업원리가 이론에서 확장되어 체화되는 ‘이론과 경험의 융합’, 예비교사로서 교사 모델링을 통해 자신의 음악 경험과 교수법이 융합되는 ‘교사로서 자기 인식’, 마지막으로 개인으로서 수업 중 음악 경험을 통해 음악적 삶과 미래 수업에의 적용으로 융합이 일어나는 ‘삶과의 융합’의 3가지 융합적 현상을 기대할 수 있다.



[사진 1] 체화 인지 단계 수업 장면

마지막 단계인 의미 창조 단계에서는 Art Share에서는 참여자들이 예비음악교사이기 전에 음악가로서 자신의 음악 경험과 창작 활동을 서로 공유하고 삶에서 향유하는 방식의 나눔을 통해 연대할 수 있는 또래학습을 진행한다. 음악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서로의 모습을 통해 음악이 가진 힘을 확인하고 음악교사 정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음악으로 유대감을 이루는 경험인 것이다. 그리고 개인별 수업시연 2회, 모둠별 수업시연 2회의 총 4회 마이크로티칭이 진행된다. 주로 수업계획-수업시연-피드백 및 평가-재수업의 4단계, 혹은 피드백 받은 내용을 반영·수정하여 다시 같은 수업을 반복하는 재수업을 생략한 3단계의 마이크로티칭은 예비교사들이 수업을 직접 경험한다는 점과 자기평가를 통한 분석 및 동료평가와 전문가 피드백을 통해 대상이 되는 수업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체계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업 전문성 강화에 효과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바이비(2009)의 5Es 모형에 따라 각 단계가 평가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평가를 제외하고, 재수업 없이 피드백을 다음 회기 수업에 반영하며, 3단계 피드백 및 평가에서 토론과 성찰을 포함함에 따라 수업계획-수업시연-토론 및 피드백-성찰 및 반영의 변형된 4단계로 구성하였다.

이로써 전체 수업과정은 자연과학, 사회과학 분야의 타 교과 및 타 예술 장르를 음악과 융합하여 음악을 다각도로 깊이 수용하고자 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융합과 그 결과, 즉 학습자 내면에서의 지식과 경험의 융합 및 삶의 융합 형태로서 융합적인 성질을 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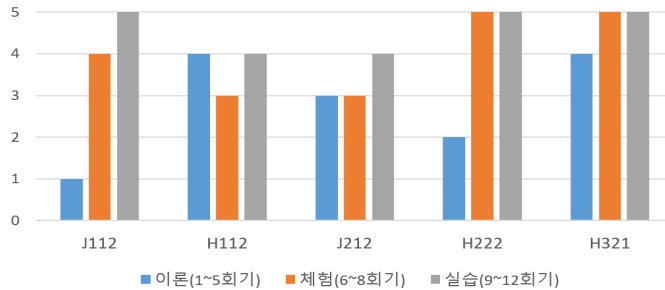
4. 자료분석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관찰하면서 참여자들과 면담하고 기록하는 방식이다. 수업활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상황과 참여자들의 반응을 밀착하여 관찰하면서 수집한 자료는 질적 연구의 특성을 보여준다. 윌코트(1994)는 질적 연구가 한 명 혹은 소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연구의 넓이보다 깊이를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특히 이 연구는 개개인의 살아있는 경험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 있으므로 현상학적 접근이 가장 적합(Stepniak, 2006: 136)하다. 그린(Schutz, 1967; Greene, 1978: 16 재인용)은 인간 존재가 경험과 현실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는 이유로 질적 연구로서의 현상학적 접근을 강력히 지지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경험을 해석하기 위해 순환적 분석기법(신경림·조명옥·양진향, 2004)으로 순환적·연속적·반복적인 과정을 거쳐 분석하였다. 질적 연구의 일반적인 과정을 따라 수집한 자료를 날짜별, 항목별로 분류한 후 전사·코딩하여 텍스트화하였으며, 여러 번 읽으며 동일한 시점의 각 자료를 교차하여 다시 범주별로 분류하였다. 예비 분석 후에는 분류된 주제 및 개념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비판적 관점을 견지하여 정리하면서 주제를 반복 분석하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각 주제별로 필요한 하위 주제를 분류한 후 해석적 분석을 거쳐 범주별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IV. 결과 분석

1. 만족도 및 결과 요약



[그림 4] 연구참여자들의 강의 참여도 변화

(출처: 임새롬 (2022). 위의 논문. p. 362)

만족도는 연구참여자들의 학습동기와 욕구를 지속하는 데 주요한 요인이 된다. 회기가 진행될수록 참여자들의 강의 참여도는 대체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여자들의 참여도는 교수자 및 학습공동체 내 또래와의 라포르 형성 여부, 직접 경험 여부, 그리고 이론-체험-실습으로 이루어진 강의 형태 등에 기인한 것임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표 4> 사후 설문지 중 3가지 질문

	이 강의를 듣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이 강의를 다른 학우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까?	이 강의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평균
J112	5	5	5	5
H112	5	5	5	5
J212	5	5	5	5
H222	5	5	5	5
H321	5	5	5	5

(출처: 임새롬 (2022). 위의 논문. p. 364)

또한, 강의 만족도를 알 수 있는 위의 3가지 질문에 참여자들은 모두 5점을 선택하였다. 특히 학습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연대하며, 직접 수업을 계획하고 시연 후 피드백을 통해 수정·보완하는 점진적인 강의내용에 만족하고 있었다.

다른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짜본 것도 흔치 않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또 구성해서 수업을 직접 하고 피드백까지 이걸 반복했던 점이 되게 귀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J112: 21.1.9. 사후 인터뷰)

직접 시연하고 피드백을 받으며 발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업보다 확실히 학생이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점이다. 한 학기 전에 비해 교사라는 직업을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 (H112: 21.1.10. 사후 설문지)

수업 안에 직접 짜보고, 수업시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흥미로웠고 또 바로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매주 성찰할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 수업하는 것 듣는 것도 저는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H222: 21.1.9. 사후 인터뷰)

H321 역시 다른 참여자들처럼 음악교사로서 가져야 할 철학과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경험, 이를 적용한 마이크로티칭 등의 직접 경험을 강점으로 꼽았다. 그리고 실용적인 피드백, 이론-체험-실습의 체계적인 수업단계를 거치면서 자신이 꿈꿔왔던 음악교사의 정체성에 가까워진 것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 수업 자체가 되게 다른 강의들보다 구성이 체계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론부터 체험, 실습이 이게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딱 단계별로 이런 체험 실습 수업이 잘 이루어진 것 같고 또 1대1 피드백도 하고 저 혼자 수업도 해보고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토론하면서 수업도 짜보고 하면서 되게 지금까지 못해봤던 경험들 많이 한 것 같고. 이 수업을 통해서 음악이랑 이제 음악교사가 이렇게 더 매력이 많고 멋진 직업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고 더 음악교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H321: 21.1.9. 사후 인터뷰)

좀 더 구체적으로, 예비음악교사를 대상으로 한 융합기반 음악교육은 다음과 같은 효과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예비음악교사들은 강의의 질과 내용에 만족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그린의 예술교육철학에 대한 이론-교사 모델링을 통한 미적 경험의 체험-수업지식을 적용하여 수업을 시연해볼 수 있는 실습의 단계적이고 실제적인 활동을 통해 음악교사의 태도와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연구자와 예비음악교사 간, 그리고 예비음악교사들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소통, 피드백이 과정 중에 활발히 일어났으며, 동료의 모델링을 통한 배움이 유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둘째, 예비음악교사들은 강의 전에는 음악 미적 경험에 대한 개념 이해나 경험이 거의 없었지만, 강의 중 예술 작품을 통한 미적 경험과 이에서 확장된 심미안으로서의 널리 깨어 있음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삶에서 미적 경험을 지속적으로 이루기 위해 삶에서 변화를 시작하게 되었다. 음악을 왜 많이, 자주, 깊이 들어야 하며 어떻게 들어야 하는

지를 알고 자신의 음악 레퍼토리를 확장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음악 장르에 대한 지적 호기심과 의식적 주목이 일어났음을 언급하였다. 음악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구체화됨을 느꼈으며 몰입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는 단순히 수업의 결과로 나타난 개인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해체하여 이를 학습자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수업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로 연결되었다.

셋째, 예비음악교사들은 음악교육의 목적에 대해 강의 전에는 특별히 고려해보지 않았거나 노래 부르고 연주하는 단순한 기능 습득, 혹은 음악의 즐거움 혹은 아름다움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였지만, 강의 후에는 학교에서의 음악 경험이 지식적·기능적 활동에서 확장되어 미적 경험으로 이어지고, 성찰을 통한 내면화로 삶의 주체인 자신을 인식하며 자기 삶과의 융합적 결과물으로써 삶에서의 의미 있는 음악 경험을 실천할 수 있는 심미안의 개발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으로 변화하였다. 음악은 ‘알려주는 것’이라는 교사의 관점에서 ‘경험하고 내면화하는 것’이라는 학습자의 관점으로 이동하였으며, 1인칭 관점에서 공동체 관점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융합의 관점이 음악과 타 교과·타 분야와의 접점을 통해 새로운 영역을 알게 함과 동시에 융합된 타 교과·타 분야의 탐색 후 회귀 시 음악에 대한 시각을 깊이 있게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교사교육으로서의 융합기반 음악교육을 통해 가능했다고 밝혔으며, 예비음악교사 양성과정에서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넷째, 인터뷰 내용 코딩 결과, 예비음악교사들은 음악교사의 역할이나 음악교사상에 대해 강의 전에는 단지 ‘음악을 알려주는 교사’, ‘가르치는 교사’ 등의 막연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강의를 통해 음악교사의 역할과 태도, 정체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개개인에게 내면화되도록 하는 교사’, ‘에너지를 갖춘 교사’, ‘음악을 사랑하도록 미적 경험으로 이끌어주는 교사’, ‘삶에서 음악을 능동적으로 만나도록 만들어주는 마음의 교사’ 등으로 교사상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가) 능동적으로 촉진하는 교사, 나) 미적 경험으로 이끄는 교사, 다) 음악을 잘 알고 사랑하는 교사, 라) 수업계획과 실행을 잘하는 교사, 마) 질문을 통해 스스로 깨닫게 하는 교사, 바) 개방적으로 자신을 개발하고 준비하는 교사를 음악교사의 역할로 꼽았다. 예비음악교사들은 자신들을 학습자이자 교사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로 인해 수업을 분석적·비판적으로 관찰할 줄 아는 안목의 성장을 스스로 확인하였다.

다섯째, 9회기부터 12회기까지 4회의 걸친 마이크로티칭을 통해 예비음악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이 향상되었다. 학습목표 및 평가기준 설정, 학습자 특성 고려, 수업내용 구성, 수업태도, 수업자료 준비, 수업환경 조성의 6영역 20개 항목으로 분류된 성취기준과

‘아쉬운-가능성 있는-우수한’의 3단계 성취수준으로 평가한 수업 전문성의 발달 정도를 분석한 결과, 9회기 당시 ‘아쉬운’에 머물러 있던 예비음악교사들의 성취수준은 12회기에 대부분 상승하여 ‘우수한’ 단계를 획득하였다. 예비음악교사들은 수업계획과 실행에 있어 수업을 구성하는 항목들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었으나 수업을 시연해봄으로써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여섯째, 예비음악교사들의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원리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이를 적용하여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한 향상되었다. 자신감의 향상은 수업을 직접 준비하고 실행해 본 경험과 동료의 수업을 관찰하면서 얻은 수업 아이디어에 대한 분석과 자극의 경험이 바탕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효과성 논의: 성장 동력

연구자는 이러한 예비음악교사들의 성장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수업 실행 중 세 번에 걸친 인터뷰와 연구기간 동안 꾸준히 제출된 예비음악교사들의 반응을 분석하였다. 예비음악교사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주요한 키워드로 음악 미적 경험, 마이크로티칭, 피드백, 성찰, 교사 모델링, 학습공동체로 나타났다.

1) 음악 미적 경험

예비음악교사들의 심미적 경험 실현은 성장의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J112는 특히 이 강의의 강점 중 한 가지로 음악의 미적 경험을 꼽았다.

예비음악교사들이 먼저 미적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다. 직접 미적 경험을 생생하게 느끼기 전까지는 내가 융합기반 음악교육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아는 것에 있어서나 알아가 봐야겠다는 동기가 자극받기 어려웠던 것 같다. 그러나 직접 강의를 들으며 미적 경험을 했던 것이 이 교육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을 알게 했고, 후에 수업안까지 짤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다. (J112: 21.1.10. 사후 설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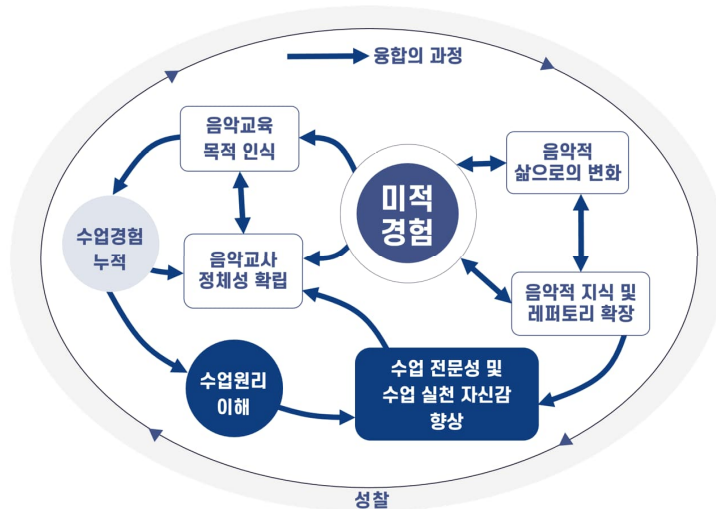
많은 예비음악교사 및 현직 음악교사들이 음악교육의 목적인 미적 경험에 대해 그 개념이나 경험이 부재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자신이 음악을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과 철학은 경험으로부터 발생하는데, 스스로 미적 경험이 없을 경우 학생들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르칠지에 대한 생각의 수준이 지식이나 기능적 측면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자신이 미적 경험을 한다면 비로소 무엇을 위해 음악을 교육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거... (중략) ...뭔가 더 차원이 높은 수업을 꿈꾸는 교사상을 갖게 되는 거. (J112: 21.1.9. 사후 인터뷰)

예비음악교사들은 이번 학기에 자신이 경험한 미적 경험을 통해 음악의 가치를 발견하고 레퍼토리를 확장하고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그린(1973)이 과학 분야의 학문적 패러다임에 대해 언급한 것을 음악 분야에도 적용해 보면, 음악의 여러 장르 중 특히 대중음악을 선호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알려주는 클래식 패러다임과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의 패러다임, 즉 대중음악의 패러다임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다. 세련되고 자극적인 대중음악에 비해 학교에서 배우는 음악들은 고루하고 오래되고 어려운 것이라 여기는 것이다.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심한 동요’ 속에서 새로운 이론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학생뿐 아니라 예비음악교사 또한 가르치고자 하는 음악을 마주할 때 본인이 알고 있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구조 안에 들어가보고자 하는 개방성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이 개방성은 학습자에게 바로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교사의 적극적이고 기술적인 유도가 요구된다.

처음에는 낯설더라도 인내하며 반복적으로 경험할 때 발견되는 새로운 음악의 아름다움, 새로운 음악의 패러다임, 예술 상징에 몰입함으로써 음악교사(혹은 학생)는 비단 음악뿐 아니라 자신이 익숙했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거나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인지하게 된다. 이제 점차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음악의 범주가 세분화되고 새로운 음악이 들릴 때 지적 호기심이 고개를 들고 더 알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며, 음악에 대해 자신의 인지를 넓히고 기존의 생각들을 수정해 나가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패러다임 전환의 ‘심한 동요’는 직접 경험을 통해 상쇄시킬 수 있다. 이 연구의 예비음악교사들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음악교사 정체성을 상향 조정하고 음악적인 삶을 위해 노력하며 음악교육의 목적을 쇄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순환 과정은 성찰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이처럼 미적 경험은 음악교육의 목적이자 목적의 필요조건이며 음악교사의 필수 경험이다. 미적 경험을 해보지 않은 음악교사가 음악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음악을 교육하는지에 대한 철학의 본질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 미적 경험을 통해 예비음악교사들은 ‘차원이 높은 교사상’을 가질 수 있었으며 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했다고 하였다. 즉, 예비음악교사 양성교육에 있어 실제적인 미적 경험을 이룰 수 있는 단계적인 수업활동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로써 예비음악교사의 미적 경험과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관련성을 나타낸 그림은 다음과 같다. 모든 수업과정은 융합의 과정이자 결과이며, 이는 자신의 순환적인 성찰에서 비롯된다.



[그림 5] 음악 미적 경험의 흐름
(출처: 임새롬 (2022). 위의 논문. p. 419)

2) 마이크로티칭

참여자들은 예비음악교사로서 노래와 피아노 연주 같은 실기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익혀야 하는지 자신들의 수업 전문성이 부족한 것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심지어 이 연구의 이론인 그린의 예술교육철학과 융합교육의 개념의 이해에 관한 의식적 주목 단계에서는 자신들의 기대보다 어렵고 막연한 강의내용을 수업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처음에 이론만 들었을 때는 정말 좀 ‘이 수업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어렵구나’ 많이 느꼈는데 확실히 근데 선생님 강의 듣고 실습하면서 정말 많이 확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걸 직접, 직접 해보니까. 제가 그걸 수업에 녹여야 되니까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H321: 21.1.9. 사후 인터뷰)

그러나 이어진 2~3단계에서 전문가의 수업을 관찰한 후 자신들의 의미로 재창조된 수업을 직접 시연하면서 비로소 예술교육철학의 의미를 알아가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직접 경험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자신이 아는 것, 자신이 하고 싶은 수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까지 깨닫게 된 것이다. 마이크로티칭의 효과를 직접 체험한 예비음악교사들은 수업시연의 기회와 깊이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방증하였다.

실제로 수업을 하듯이 해보니까 수 시간에 걸쳐 들었던 강의들이 체화되며 변화를 가져다주었던 것 같다. 그 과정들 속에서 수많은 동기부여와 변화들이 일어났고, 더불어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안을 짜보고 시연해보는 시간도 귀한 경험이었다. (J112: 21.1.10. 사후 설문지)

수업시연 준비하면서는 그냥 막연하게 바라봤던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해 보고 그동안 또 예술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 혼자서 깊게 생각해왔던, 이 수업을 들으면서 조금 더 넓고 깊게 탐구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H112: 21.1.9. 사후 인터뷰)

지금도 똑같이 음악교육의 목적은 교사로 인해 이제 학생들이 음악에 쉽게 다가오고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이 목적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뭔가 잘 아예 몰랐고, 근데 이 수업 들으니까 이제 다 연습. 수업시연 같은 것도 해보고 융합 수업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그러고나니까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H222: 21.1.9. 사후 인터뷰)

정리하면, 마이크로티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음악교사 정체성이 형성되었고, 음악과 타 예술에 대한 깊은 탐구심이 발생하였다. 또한, 반복된 수업 경험으로 점차 체계성이 잡혔으며, 학생들이 음악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수업 전문성의 향상 과정에서 미적 경험이 발현되고 심미안이 개발됨을 느끼기도 하였다.

수업의 전체적인 과정이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수업 따라가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이론에서 배운 내용들은 선생님의 수업시연을 통해 이해를 하고 자신이 직접 지도안을 짜고 시연을 하며 완벽하게 체화할 수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다양한 미적 경험을 할 수 있고 심미안을 기를 수 있으며 음악교사 전문성 또한 향상된다. (H321: 21.1.10. 사후 설문지)

마이크로티칭은 학습목표와 평가기준, 학습자 특성 고려, 교사의 수업태도, 수업자료 준비 등의 수업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의 중요성을 체화하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교사의 관점이 아닌 학습자 친화적인 관점에서 수업을 바라봄으로써 교육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수업자료에 대해서 전에는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했었던 말이죠. 또 음악시간이니까 그런 자료를 준비할 그거 거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해 보니까 정말 보기 편하고 또 그런 것도 학생들 입장에서 되게 중요할 수 있겠구나. (J112: 21.1.9. 사후 인터뷰)

수업이 이렇게 짜임새 있고 이렇게까지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것도 이번 강의 들으면서 직접 해보니까 처음 알았고. 저는 애초에 저 스스로 음악 수업을 지도안까지 짜면서

시연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이번 수업을 통해서 이론, 체험, 모두 도움이 됐지만 전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실습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직접 수업시연해 보면서 가장 느껴지고 직접 와닿는 게 많더라고요. (H321: 21.1.9. 사후 인터뷰)

한편, 오래전부터 교수자의 일방적인 온라인 강의형태가 아닌 학습자와 교수자, 학습자와 학습자가 상호작용하며 소통하는 공간에서의 양방향 온라인 수업이 현실화된 시점에서 예비음악교사들의 온라인 수업시연은 더욱 교육적인 효과를 발생시켰다.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 줌 수업도 시연해봄으로써 이제 선생님들의 고충을 알게 되었고, 음악교사는 진짜 많은 역량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껴서... (H222: 21.1.9. 사후 인터뷰)

결론적으로 예비음악교사 양성교육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업 내의 모둠협력학습이나 파트너 활동 및 개인활동 후 공유로 이어지는 다양한 수업형태, 디지털 미디어 자료 등 학습자의 이해를 돕는 수업자료, 그 외 수업을 구성하는 요소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수업실행은 현재의 교사교육과 같이 개괄적인 이론 중심 강의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고 수업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수업에 무엇이 필요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한 고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의 직접적이고 반복적인 경험만이 실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3) 피드백

예비음악교사들의 마이크로티칭은 경험 부족으로 인해 아직 미숙한 것이 사실이다. 수업기술의 방법을 달리함으로써 달라지는 학습자들의 반응과 그에 대한 다음 대응, 그리고 교육효과를 높이는 노하우나 실수 발생 시 해결 방법의 단초를 정확히 제공하도록 하는 피드백은 수업 전문성 향상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때 이루어지는 피드백은 전문가 피드백과 동료 피드백 두 가지가 있다.

수업계획안 짜는 것도 한 번도 안 해 봤는데 짜고 그걸 직접 수업도 해보고 그 이후에 서로 다른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피드백까지 하고 그 이후에 또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직접 해보고 피드백을 받은 게 체계적으로 계획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거 같아요. (J112: 21.1.9. 사후 인터뷰)

강의 전에는 그냥 그 교육과정에 기반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안 해보고 그냥 학생들이 (웃음) 즐거웠으면 좋겠다,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만 했었는데 이렇게 피드백을 받고 또 제가 어떻게 틀에 갇혀 있었는지 자꾸 알게

되니까 이제 수업을 생각할 때도 조금 더 저만의 시야, 시각이 아니라 학생들의 시각에서 어떻게 수업을 들을지 더 잘 생각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H112: 21.1.9. 사후 인터뷰)

수업시연 후에 피드백을 받으면서 생각보다 학생들은 교사의 모든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행동과 말까지 주의 깊게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H112: 21.1.10. 사후 설문지)

예비음악교사들은 마이크로칭 초반에 자신이 수업을 직접 해보더라도 수업의 방향이나 기술이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아 망설이게 된다고 자주 토로하였다. 이때 수업시연 후 토론과정에서의 동료 피드백은 자신과 비슷한 눈높이에서 관찰자의 눈으로 다른 것을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되는데, 이것이 유용하게 작용할 때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력 많은 현직 교사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피드백들은 예비음악교사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학교 현장을 생생히 상상하게 하고, 자신들이 꿈꿔온 음악교사 정체성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자신의 눈높이에서 학년별 학습자의 눈높이를 어떻게 맞추어야 할지에 대한 감각을 생성하게도 하였다.

선생님이 1:1로 피드백해 주시고 다른 학생들한테 피드백하는 거 들으면서도 되게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꿀팁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나오는 만큼, 저희가 배우면서도 저희 스스로의 미적 감각이랑 심미안도 그 속에서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역시 제가 지도안 짜고 수업시연한 거를 현실적인 관점으로 조언해 주시고 피드백 받는 이런 경험 그게 정말 너무 좋았고... (H321: 21.1.9. 사후 인터뷰)

전문가의 피드백은 예비음악교사들의 수업 전문성뿐 아니라 수업을 보는 안목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비음악교사들은 다른 동료의 수업에 대해 피드백하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수업을 분석하게 되고, 이를 자신의 수업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수업시연 후 토론과정에서 이루어진 전문가 및 동료 피드백은 예비음악교사의 수업 전문성의 방향을 점검하고 발달시키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4) 성찰

예비음악교사의 음악교사 정체성과 수업 전문성 향상에 성찰이 크게 작용하였음을 참여자들의 구체적인 응답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가장 최고의 강점은 성찰인 것 같아요... (중략) ...초반에는 어떤 수업이 좋은 수업인지 몰라서 갈피를 못 잡아서 고생을 되게 했거든요. 근데 ‘아, 나는 내 수업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객관적으로 좋은 수업인지 알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다음 주, 그다음 주가 될수록 제가 이제 성찰하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성장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몰랐거든요... (중략) ... 그리고 이제 성찰일지 같은 거 쓰는 게 귀찮다는 생각이 좀 들면서도 막상 쓰고 나니까 내 수업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고 다른 수업들을 통해서 배울 점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한 단계 더 성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H222: 21.1.9. 사후 인터뷰)

성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 수업을 통해 뭔가 모르는 게 내 안에 내면화가 되고 누군가 심미안을 갖고 뭔가 느껴질 어떤 걸 통해서 ‘나는 어떨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나의 변화된... (중략) ...마지막에 성찰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힘이 또 개발될 수 있을 것 같고. (J112: 21.1.9. 사후 인터뷰)

음악교사를 꿈꾸는 학생의 입장에서 이 강의는 내가 음악교사에 대한 생각과 음악 자체에 대한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고 이들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학생에게 성찰을 불러일으킨다. (J212: 21.1.10. 사후 설문지)

동료와 전문가의 피드백은 수업시연 후 자기 수업에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는 주관적인 상태에서 자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을 발견하게 하고 객관성을 찾도록 돕는다. 이때 그 피드백들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이며 다음 회기 마이크로티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일지로 기록하는 성찰의 과정에서 자신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피드백을 숙고하며 성찰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앞서 언급한 성장 동력인 마이크로티칭이나 피드백은 무용지물이었을 것이다. 자신의 내면으로 가져오는 성찰이 없다면 어떤 피드백이든 의미 없는 조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성찰은 자신을 찾는 일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하는지 의식적으로 알게 하는 철학적 수단이기도 하다. 성찰하는 교사는 철학하는 교사이며 철학하는 교사의 교육이야말로 학생들을 진정한 교육의 본질로 이끌 수 있다. 이때, 성찰은 생각한 것을 단순히 기록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찰이 의미 있도록 삶과 연계한 핵심 질문이 중요하다. 핵심 질문은 개인의 관점에서, 예비음악교사의 관점에서, 앞으로의 자기 삶에서, 미래 자신의 수업에서 오늘의 활동이 자신의 학습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하고 생각을 확장시키는 것을 돕는다. 특히 융합기반 음악교육에서의 성찰은 1인칭 차원의 교사 내면 혹은 학생들 내면의 울림으로 그치지 않고, 삶과 공동체에 융합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실천하게 하는 마음가짐으로서 개인을 성장하게 하고 나아가 민주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출발점으로 질문의 활용과 숙고에 방점이 있다. 예비음악교사들은 그 출발점에서 자신의 음악교사 정체성이 확립

되고 수업 전문성이 향상되었으며, 다양한 학생들을 만날 미래 자신의 수업에서 성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이해하게 되었다.

5) 교사 모델링

예비음악교사들은 교사의 모델링 수업에서도 교사의 수업태도와 수업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예비음악교사들은 전문가 교사의 수업에서 교과 지식이나 교수법, 수업태도와 마음가짐을 모델링한 것으로 보인다.

선생님께서 수업을 직접 되게 열정적으로 해 주셔서. 그런 수업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고 이후에 수업시연을 준비하면서 일종의 가이드 라인이 되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교재 같은 거 만드신 것도 보여주셨는데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도 이런 교사가 될 수 있을까? 매주 이렇게 음악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H222: 21.1.9. 사후 인터뷰)

선생님이 그 직접 만드신 책. 이렇게 제본한 그 책을 보고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음악 수업을 받을 때 그런 식으로 음악 수업 내에서 많은 내용을 다룬다거나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음악 수업은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음악 수업에서 진짜 다양한 내용과 많은 거를 학생들에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그 책을 보고 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교사가 노력을 하면 학생들이 생각보다 더 많은 양을 이렇게 소화하고 음악을 잘해갈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 (J212: 21.1.9. 사후 인터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들었던 음악 수업보다 선생님께서 시연해 주신 재즈나 관소리 수업들이 훨씬 흥미롭고 ‘이런 게, 이렇게 하는 게 음악 수업이구나’ 를 약간 느꼈었고.... (중략)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 이제 열정적으로 노력하면서 이렇게 저희 발전시켜주려고 하시는 모습도 되게 좋았어요. (H321: 21.1.9. 사후 인터뷰)

말로 이해시키기 어려운 것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알게 하는 것이 모델링의 강점이다. 수업구성이나 단계, 자료, 태도, 기술 등의 여러 세부적인 요소를 설명하지 않아도 전문가의 수업을 총체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종합적으로 인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응답처럼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는 교재를 통해서도 예비음악교사들은 음악교사의 역할과 태도, 수업범위의 확대를 인식하였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음악교사 정체성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

학생들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이렇게 판소리를 재밌게 배울 수 있다니 신선한 충격이어서... (중략) ...융합기반 음악 수업이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교사는 이를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을 통해 더 알게 되었다. 학생들 앞에서 ‘할 수 있다’ 는 것을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선생님, 능동적인 분위기를 이끌어주는 선생님이 되어야겠다. (H222: 20.10.19. 7회기 패들릿)

내가 음악교사가 되어 수업을 진행할 때 과목 특성상 표현하고 느끼고 즐겨야 하는 수업이 많을 것이다. 이때 학생들이 충분히 거리낌없이 표출할 수 있도록 교사가 먼저 시범을 보이며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략) ...오늘 선생님께서 내 생각을 바꾸고 벽을 허문 것처럼 나도 교사가 되어 학생들이 적어도 분위기 때문에 눈치 보며 자신의 넘쳐나는 음악적 역량을 숨기지 않도록 내가 먼저 나서서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H321: 20.10.19. 7회기 패들릿)

예비음악교사들은 교사의 수업을 보고 학습자의 원활한 음악적 표현을 위한 환경 조성, 수업의 체계성, 교사의 능동적인 태도의 중요성 등을 깨달았으며, 다음 실습 단계에서 이를 자신의 수업에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실행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신이 학습자의 입장으로 전문가의 수업에 참여하는 견습관찰(apprenticeship of observation) 경험이 자신의 미래 수업에 반영하고자 하는 동기를 생성한 것이다.

특히 음악교과는 학습자와의 인지적·정서적·심동적 영역 전반에 걸쳐 교사-학습자 간의 상호작용과 소통이 필요하며 교사의 음악에 대한 애정과 태도가 학습자에게 크게 영향을 주므로, 전문가로 검증된 교사의 모델링 수업은 예비음악교사들의 음악교육 실천과 음악교사 정체성 및 수업 전문성에 큰 효과를 낼 수 있기에 예비음악교사 양성과정에 유의미한 처치라고 판단된다.

6) 학습공동체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에 따라 형성한 학습공동체는 예비음악교사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된 환경이 조성되어 원활한 토론과 수업 아이디어를 생성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혼자 할 때보다 훨씬 훨씬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도 빠르고 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짧은 시간 안에 나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용까지 다루게 되었다. ‘집단 지성, 집단 파워(?)가 이런 거구나’ 를 느꼈었다. 함께 이 수업을 구상하기 위해 서로 의견을 내고 피드백하고 함께 지도안을 작성해나가는 활동 자체가 생산적이고 발전적이어서 그것만으로도 뿌듯한 마음이 많이 들었었다. 같이 하니깐 여러모로 다양한 요소들이 부스터 효과를 내주었고 혼자였다면 할 수 없었을 만한 결과들을 냈었던 것 같다. (J112: 20.11.2. 9회기 성찰일지)

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서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짚어주고 좋은 의견이 나오면 그에 덧붙여 더 좋은 의견으로 만들었다. (H321: 20.11.2. 9회기 성찰일지)

이처럼 학습공동체는 개개인의 관점과 아이디어가 더해진 집단지성을 이끌어내는 좋은 수업도구로서 공동체로 연대하여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된다. 이때, 더 좋은 방향을 위한 비판적인 분석과 수용을 위해, 혹은 자신의 의견을 다른 구성원에게 설득하여 관찰하기 위해 토론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역량의 개발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해본 적 없는 낯설고 복잡해 보이는 수업계획 및 시연을 혼자서 아닌 여럿이 함께 시작함으로써 일에 대한 거부감이나 스트레스가 적어 그 문턱을 쉽게 넘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처음에 팀별로 준비하다가 개인으로 넘어갔는데 이 점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팀별로 하면서 서로 얘기도 되게 많이 하고 좀 그렇게 방향을 잡아가다가 개인으로 넘어가니까 좀 더 개인으로 할 때 퀄리티가 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좀 더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타격이 그래도 엄청 크지는 않았으니까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H222: 21.1.9. 사후 인터뷰)

모둠별 수업시연의 시행착오를 경험 삼아 개인별 수업시연에서는 좀 더 구조적으로 안정된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었다고도 진술하였다. 즉 학습공동체는 구성원 공통의 목표를 위한 능동적인 참여로 인해 개개인의 정체성 변화에 영향을 주고, 공동체의 목적이 공공선을 이룰 때 공명하는 효과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음악교사는 다수의 학생들 앞에서 노래하고 연주하기 위해 타 교과보다 더 큰 자신감과 사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성향의 예비음악교사들이 공동체의 집단지성과 연대감에 의지하여 적극성을 띠도록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학습공동체의 구성과 실천은 향후 학교 현장의 다양한 교사를 만나 교류하게 될 예비음악교사들의 성장에 필요한 동력이라고 판단된다. 이상으로 예비음악교사교육에 필요한 성장동력을 그림으로 요약하면 (그림 6) 과 같다.



[그림 6] 예비음악교사들의 성장 동력
(출처: 임새롬 (2022). 위의 논문. p. 431)

V.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예비음악교사를 대상으로 설계한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을 실행하여 미적 경험과 창의 융합 역량을 바탕으로 한 음악교사 정체성과 수업 전문성의 변화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설계연구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실제적 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며, 이는 학습자의 지식과 경험이 협력을 통한 타인과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으로 개인의 적극적인 의미가 구성된다는 사회적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기반하였다. 이 이론은 풍부한 수업자원과 협력적인 학습환경, 실제적인 맥락에서의 적절한 교수자 개입을 통한 학습을 핵심으로 한다. 이 연구의 이론이 되는 그린의 예술교육철학과 LCE의 교육방식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구성주의 학습이론의 측면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명문화된 LCE의 교육원리를 적극 활용하여 설계한 것이다.

다만 LCE 교육과정과의 차이점은 단계의 순서이다. LCE는 학습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경험-실천-이론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앞설 수 없으며, 경험하기 전에는 개개인이 진정한 의미를 창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이 연구는 LCE와 마찬가지로 학습자 경험 중심 교육을 기조로 한 이론-체험-실습의 단계로 재구성한 후 실행하였다. 참여자들이 가진 두 가지 특성에 따라 순서를 조정한 것이다. 우선, 숙달된 교육예술가나 교사가 아닌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참여자들의 온라인 학습환경 적응도와 예비음악교사로서의 인식 부재와 관련이 있다. 연구자는 사전 인터뷰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음악 경험이나 교수 경험, 그리고 그에 대한 이해도가 LCE Summer Forum의 참여자들에 비해 낮다고 파악하였다. 즉 연구자가 제시하는 음악 작품 및 수업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참여자들이 자신을 학습자이자 미래의 교사로 이해하고 모드를 전환하는 데 필요한 시간, 온라인 학습환경에서의 예술교육에 적응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하여 참여자들이 수업의도와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고취할 수 있는 이론을 먼저 배치하여 실행하였다.

또 하나는, 참여자들이 음악 작품을 아는 데서 그치는 학습자가 아닌 미래에 음악교육을 실행해야 하는 예비교사인 만큼 강의를 통해 깨달은 내용이 자신들만의 교수법으로 창조되기 위해서는 개념적 지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는 참여자들이 낯선 교육학적 개념을 숙지한 뒤 무엇을 위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스스로 심사숙고한 후 작품을 만날 때 지식과 경험이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로 창조될 것이라는 생각에 기반한 것이다.

둘째,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은 전문성 있는 현직 교사의 현장성을 특징으로 한다. 전문성을 인정받은 현직 교사의 모델링은 예비음악교사들이 복합적인 수업기술을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에 다양한 문화권과 시대의 음악 장르에 대한 교육학적·내용학적 교수가 가능하고, 타 예술 혹은 타 교과와 융합시켜 다양한 방향과 해석이 가능한 수업을 구성 후 능동적인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교수자를 전제로 한다. 참여자들의 수업을 실제 중·고등학교에 적용했을 때 이질감이 없도록 음악적이고 교육적인 교수활동으로 구성하게끔 정확히 피드백 할 수 있는 엄격히 관리된 역량의 교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는 역시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의도와 같이 예비음악교사들의 풍부한 음악 미적 경험과 수업 전문성은 준비된 음악교사의 교육으로부터 시작함을 함의한다. 이는 곧 참여자들의 음악교사 정체성을 다져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으로 음악교육의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수업의 설계와 실행에 있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학습공동체 구성원 간의 음악 경험에 관한 공유의 기회 확대가 요구되었다.

예비음악교사들은 사후 인터뷰에서 수업과정 중에 나는 자신들의 미적 경험에 관한 교류가 미적 경험의 기준에 대한 안목을 넓히고 다양한 형태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하였다. 예비음악교사들의 학습공동체는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공동체임과 동시에 음악 고유의 특성인 미적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체이기도 하다. 다양한 음악 작품과 음악가 레퍼토리, 신보에 관한 정보 등 자신의 음악에 대한 생각과 경험, 전문가뿐 아니라 또래가 어떤 음악을 접하고 있는지 공유하는 시간은 좋은 자극을 받고 정보를 얻는 기회일 수 있다. 이러한 자극은 마이크로티칭으로 연계되어 자신만의 좋은 수업을 만들어내는 역량으로 반영되는 것을 수업과정 중 확인한 바 있다. 서로를 교사이기 전에 음악가로 인정하고 서로의 음악과 예술 세계를 존중하는 한편, 각자의 음악적 배경에서 나온 수업의 개성을 관찰하며 자신의 수업 아이디어 및 음악 레퍼토리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 과정별 시수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교육철학과 수업안 작성법 등 교사로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내용의 습득도 중요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이유를 들어 강의 내에서 실제적인 미적 경험의 기회가 더 확대될 것을 개선점으로 꼽았다.

둘째는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학부 강의 3시간이 아닌 학교 현장처럼 45분 수준의 짧은 단위로 수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론 회기를 줄이고 체험 회기를 늘리는 방안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수업단계별 시수의 조정뿐 아니라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시수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수업설계안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는 마이크로티칭에서의 수업시연 시간 부족을 개선점으로 지적하였다. 회기별로 참여자들에게 20~30분의 수업시연 시간이 할당되었으나 다소 지체되었으며, 동료 및 전문가의 피드백이 길어져 3시간의 강의시간이 모자라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였다. 이에 수업시연 시 시간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면서 핵심적인 피드백과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수강인원에 따라 마이크로티칭 시간이 1/n로 주어지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수강인원 증가에 따른 시간 부족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이상적으로 설계된 수업임에도 교실 수업에 맥락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를 제한적인 시간으로 지목한 마이어듀저와 키퍼만(2002)의 주장과도 상통한다. 학급당 과도한 인원이 배정된 과밀학급이 초래하는 학생의 교육기회 부족 문제는 초·중·고등학교에서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문제이며, 이는 개인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수업경험의 반복을 통해 강화되는 예비음악교사의 수업 전문성 및 음악교사 정체성은 성공적인 음악교육의 목적 달성 및 활성화로 연결된다는 것을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강

조한 것과 같이 마이크로티칭의 1인당 기회 감소는 결국 향후 음악교육의 수혜자인 미래 학생들의 교육기회 저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마이크로티칭이 예비음악교사 양성교육에서 효율적으로 순환될 수 있기 위한 행정적·정책적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연구의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양성단계의 예비음악교사뿐 아니라 연수과정 등을 통한 현직 음악교사 재교육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융합기반 음악교육의 교사교육적·음악교육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앞서 언급한 개선점을 보완한 형태의 수업설계가 필요하다. 현직 음악교사 대상 실험연구와 예비음악교사 대상 실험연구 간 비교 분석을 통한 결과는 음악교육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의 접근, 그리고 미적·융합적 교사의 양성을 위한 세분화된 방법론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융합기반 음악교육은 비음악교과 예비교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의식적으로 주목하여 관찰하고 체화를 통해 인지하며 새로운 의미를 창조해내는 미적 교육’은 음악교육뿐 아니라 타 교과 예비교사들에게도 필요한 교육이라 볼 수 있다. 예술적인 심미안이 함양된 상태에서 자신의 교과 전문성이 융합되는 일은 배움의 심미적 경험이자 인문 및 예술을 아우르는 진정한 의미의 융합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융합기반 음악교육은 학교 현장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 수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수업원리와 설계 방향을 참고하여 초·중·고등학생들의 특성과 교육목적에 맞는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 융합역량과 미적 경험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신경림 · 조명옥 · 양진향 (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임새롬 (2022). 맥신 그린(Maxine Greene)의 예술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한 예비음악교사 대상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설계 및 적용. 박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임새롬 · 민경훈 · 백성혜 (2021).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원리 개발. *음악교육공학*, 49, 69-93.
- 임새롬 · 송영옥 · 백성혜 · 민경훈 (2020). 음악 중심 융합교육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 *음악교육공학*, 45, 107-126.
- 임새롬 · 최경식 (2022). 예비음악교사 대상 융합기반 음악교육 수업 설계. *융합교육연구*, 8(1), 60-78.
- Bybee, R. W. (2009). The BSCS 5E instructional model and 21st century skills. *In Paper commissioned for the workshop on exploring the intersection of science edu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21st century skills*. National Academies Board on Science Education.
- Greene, M. (1973). *Teacher as Stranger: Educational Philosophy for the Modern Age*.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_____ (1978). *Landscape of Learning*.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Mioduser, D., & Kipperman, D. (2002). Evaluation/modification cycles in junior high students' technological problem solving.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y and Design Education*, 12, 123-138.
- Reigeluth, C. M. (1983). *Instructional-Design Theories and Models: An Overview of their Current Status*.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Seidman, I. (2006). *Interviewing as qualitative research: A Guide for researchers in education and the social science (3rd Ed)*.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Stepniak, M. (2006). *Artful transformation: considering Maxine Greene's arts encounters as examples transformative learning*. Ph.D. Harvard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 Wolcott, H. F. (1994).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London: Sage.

【Abstract】

Qualitative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Convergence-Based Music Education for Prospective Music Teachers

Im Saerom
(Woonam Middle School)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a course designed based on the principles derived from the intersection of Maxine Greene's philosophy of arts education, LCE arts education, and convergence education, aiming to enhance the music teacher identity and pedagogical competence through the reinforcement of aesthetic experiences and convergence capacities of prospective music teachers. The effectiveness of convergence-based music education was discussed after implementing it over 12 sessions during a semester, targeting five prospective music teachers enrolled in a teacher education university. The 3-stage course, consisting of theory, experience, and practice, was executed using convergence education methods to facilitate aesthetic experiences in music. The lesson outputs and interview data obtained for analysis were coded through a recursive coding process using the technique of recursive analysis. The research participants reported high satisfaction with the content and quality of the education and exhibited changes not only in their perception of the purpose of music education but also in the attitudes, roles, and establishment of identity among music teachers. Furthermore,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pedagogical expertise was observed. These changes extended beyond the realm of teaching and aimed to promote a transition towards a more aesthetic-oriented existence in the personal lives of the participant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se transformations was attributed to the effects of aesthetic experiences, the formation of learning communities, teacher modeling, microteaching, feedback, and reflective practices within the context of convergence-based music education.

Key words: Convergence-based Music Education, Music Education, Convergence Education, Education for Prospective Teachers, Teacher's Aesthetic Experiences